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디케이티(290550)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김창현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케이티(290550)

표면 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FPCA(Flexible Printed Circuit Assembly) 제조

기업정보(2020/08/25 기준)

대표자	최남채
설립일자	2012년 06월 21일
상장일자	2018년 12월 21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주요제품	스마트폰용 FPCA

■ 안정적인 스마트폰용 FPCA 매출과 신사업 확장 진행 중

디케이티(이하 동사)는 2012년 6월 설립되어 2018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표면 실장 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SMT)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는 연성 회로기판 실장 부품(Flexible Printed Circuit Assembly, 이하 FPCA)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용 FPCA 판매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갤럭시 S, 노트 시리즈 등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 동사는 현재 보유한 표면 실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PCM 사업과, HRC 안테나용 FPCA 제조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시세정보(2020/08/31 기준)

현재가	19,1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572억원
발행주식수	8,231,333주
52주 최고가	30,850원
52주 최저가	5,610원
외국인지분율	1.6%
주요주주	
비에이치 외 1인	32.8%
아현텍	25.5%

■ 표면 실장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및 품질경쟁력 확보

베트남에 위치한 DKT VINA는 동사의 종속기업으로, 동사가 판매하는 FPCA 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DKT VINA는 베트남 사업장에 다수의 고속 마운터기를 보유하여, 연간 46.5억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체형 OLED 패널 Y-OCTA 기술을 보유하여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폴더블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퀄컴의 사용승인에 따른 신사업 활성화 기대

동사는 2020년 7월 퀄컴에서 생산하는 무선통신용 초고주파 칩(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이하 RFIC) 모듈과 모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안테나 부품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퀄컴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는 통신칩 등에 동사의 부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동사가 퀄컴의 핵심 통신 부품 협력사로 지정되면서, 동사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동사의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2,788.4	94.2	140.8	5.1	108.9	3.9	125.2	16.3	507.9	2,220	2,389	-	0.0
2018	2,401.7	-13.9	86.8	3.6	-16.8	-0.7	-7.9	-2.1	152.9	-276	3,516	-	4.0
2019	3,377.2	40.6	128.9	3.8	79.4	2.4	18.3	8.5	96.3	965	7,085	14.3	2.0

기업경쟁력

표면 실장 기술 보유

- 전문적인 설계 기술, 부품 선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 FPCA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력 확보
-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PCM, HRC 안테나 등의 신사업 확장 진행 중

생산 및 품질 우위 확보

- 다수의 고속 마운터기를 보유하며 높은 생산역량 확보 (연간 46.5억 개)
- 신뢰성 검사 기술 등의 개발과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경쟁력 확보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Y-OCTA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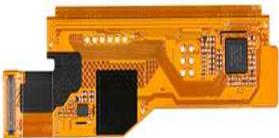
- 메인 디스플레이와 TSP의 일체형 부품으로 화면 정보와 터치 정보를 한 번에 메인 모듈로 전달
-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 갤럭시 S, 노트 시리즈 등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 중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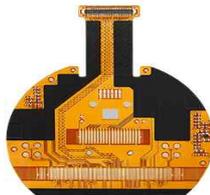
주요제품

디스플레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카메라용



HRC 안테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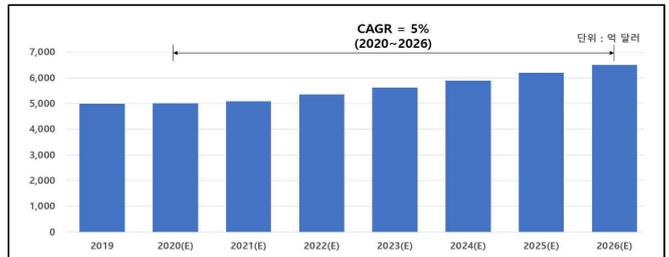
매출 비중

- 2020년 2분기 제품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매출 유형	매출액	비중
스마트폰용 FPCA	156,836	90.5
스마트워치용 등	11,218	6.5
상품	3,389	1.9
임가공	1,940	1.1
총합계	173,383	100.0

시장경쟁력

세계 EMS 시장규모



세계 폴더블폰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30만 대	4,300%▲
2021년	1,320만 대	

삼성전자향 FPCA 생산업체 중 높은 점유율 확보

- 2019년 삼성전자향 FPCA 판매실적 (단위: 백만원, %)

품목	판매실적	비중
디케이티	332,281	54.3
유니온	216,769	35.4
유비셀	62,759	10.3
총합계	611,809	100.0

최근 변동사항

퀄컴의 5G 안테나 부품 사용승인

- 퀄컴 제품에 동사의 5G MPI 케이블 관련 부품 사용승인 획득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동사의 부품 판매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5G 사업 활성화 예상

- 데이터 산업 확대를 위한 5G 인프라 구축사업 활성화 기대
- 5G 스마트폰용 부품 및 HRC 안테나용 부품의 수요 증가 기대

I.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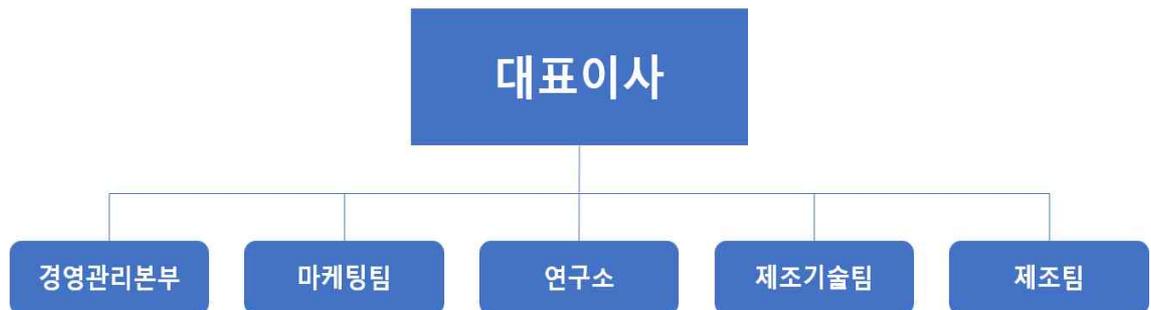
스마트폰용 FPCA의 안정적인 매출실적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중

동사는 표면 실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용 FPCA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PCM, HRC 안테나 등의 신사업 확장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2012년 6월 아이탑테크로 설립되었고, 2016년 4월 비에이치아이탑테크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18년 3월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동사는 표면 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는 FPCA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엠디플렉스로부터 베트남 생산 법인을 인수하여 베트남 공장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2018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20년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총 3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의 조직은 경영관리본부, 마케팅팀, 연구소, 제조기술팀, 제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연구소는 SMT 파트와 신기술 파트로 구분되어 생산공정 기술개발과 동사의 신사업부문(전기차 배터리용 PCM(Protection Circuit Module, 보호회로), HRC(High Frequency RF Cable) 안테나 부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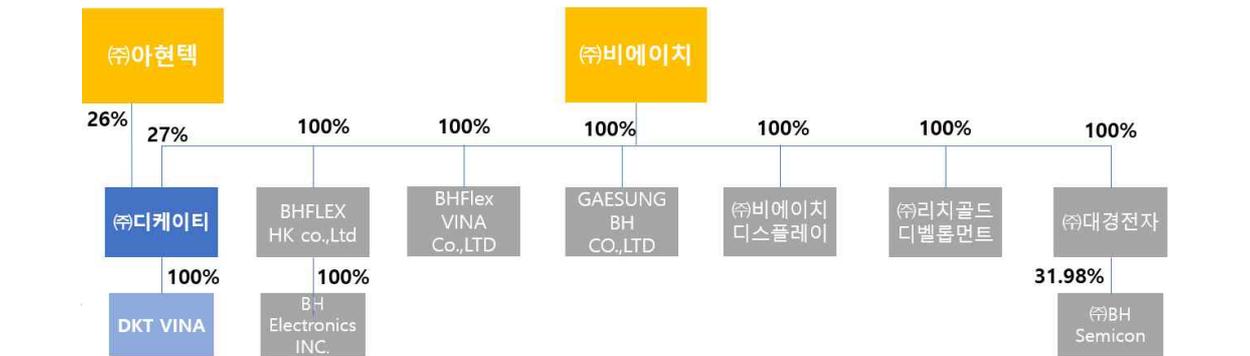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가공

■ 계열회사 및 주요주주

동사의 계열회사는 총 11개로, 1개의 상장사와 10개의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비에이치(최대주주: 이경환, 22%)는 동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FPCB)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사의 주요 FPCB 매입처 중 하나이다. 동사는 종속기업으로 DKT VINA(베트남 소재, 동사가 100% 지분 보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DKT VINA는 동사가 판매하는 FPCA 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계열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경쟁력과 균일한 제품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계열회사 지배구조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가공

■ 주요제품 및 매출 비중

동사의 주요제품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용 FPCA로 갤럭시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등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 FPCA는 FPCB에 표면 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전자부품을 접합한 것을 말한다. 동사의 스마트폰용 FPCA는 분리형 OLED, TSP(Touch Screen Panel), 일체형 OLED(Y-OCTA)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스마트폰용 FPCA가 동사 매출의 90.46% 비중을 차지하여 매출 대부분을 시현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95% 이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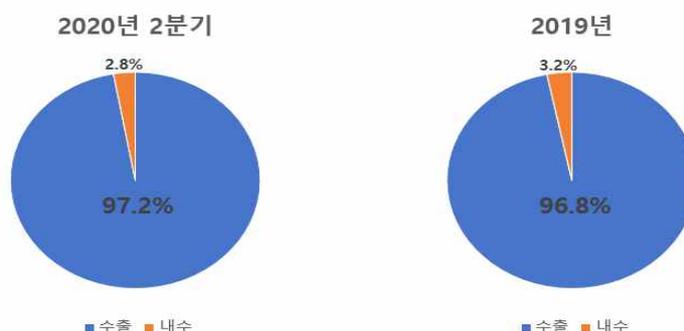
[표 1] 동사의 주요제품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 원, %)

매출 유형	품목	2020년 2분기		2019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스마트폰	156,836	90.5	309,490	91.6
	워치	10,453	6.0	20,809	6.2
	기타	765	0.4	1,576	0.5
	제품계	168,054	96.9	331,875	98.3
상품(제품 관련 부속품)		3,389	1.9	5,152	1.5
임가공	스마트폰	1,853	1.1	661	0.2
	기타	87	0.1	35	0.01
	계	1,940	1.1	695	0.2
총계		173,383	100.0	337,722	100.0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그림 3] 동사의 매출실적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II. 시장 동향

폴더블폰 등을 동력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EMS와 스마트폰 산업

5G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폴더블폰의 판매 본격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성장 등 전망산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EMS 시장의 성장이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제품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른 EMS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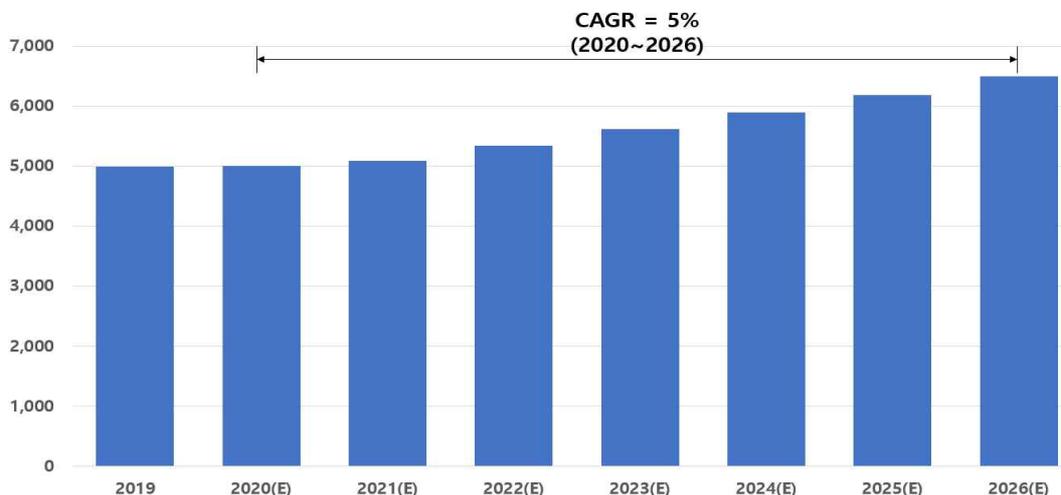
동사는 FPCB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집적회로(IC-Chip) 등의 부품을 실장해 FPCA를 제조하여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전자제품위탁생산)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EMS는 전자제품의 제조와 판매과정 중에서 생산에 특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업체로부터 자사 상표 없이 수탁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EMS 업체는 부품의 대량구매로 원가를 절감하고, 기술, 부품의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발주업체는 생산비용과 대규모 설비투자 위험을 줄이고, 연구개발, 제품설계 및 마케팅에 집중하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EMS 시장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IoT, 3D 프린팅,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Global Market Insights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EMS 시장은 2019년 5,000억 달러에서 연평균 5% 성장하여 2026년에는 6,50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사의 주력 생산 제품의 전망산업에 해당하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신사업의 전망산업인 전기자동차 분야는 EMS 시장의 성장 동력 분야로 선정되어 동사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EMS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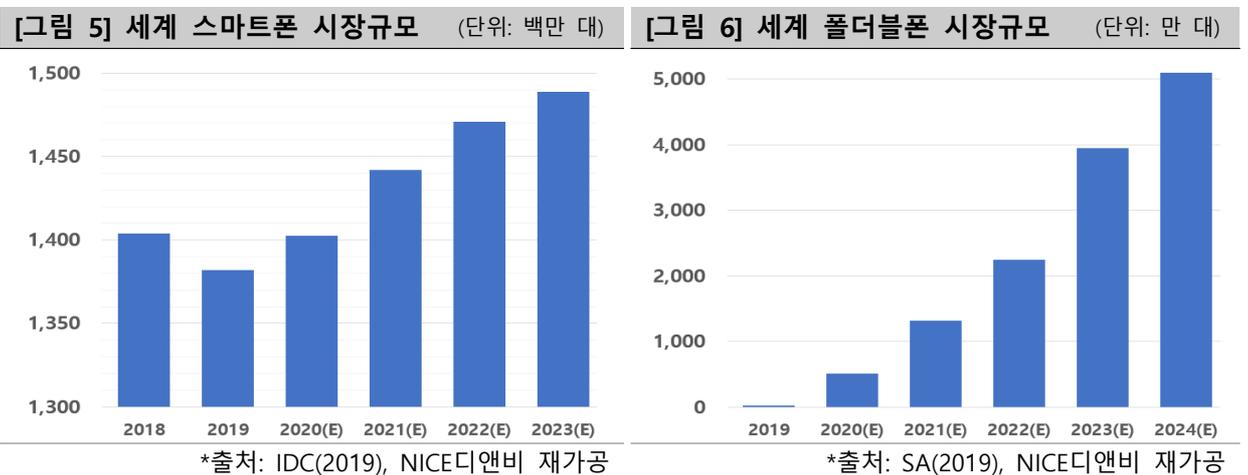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2020), NICE디앤비 재가공

■ **폴더블폰의 성장세,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예상**

IDC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스마트폰용 FPCA 모듈의 전방산업인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출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5G 스마트폰의 출시와 함께 4G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시작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연간 14억 대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갤럭시 Z플립 등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스마트폰 시장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SA(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폴더블폰 시장규모가 2019년 30만 대에서 2021년에는 1,320만 대, 2024년에는 5,09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플러스 성장 전환과 동사가 폴더블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Y-OCTA 기술을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의 FPCA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워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점유율 선두 유지**

SA의 시장조사 따르면, 2020년 1분기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성장한 1,370만 대로 조사되었다. SA는 COVID-19로 소비자들이 개인의 건강을 확인하려는 경향과 온라인 판매의 활성화가 스마트워치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스마트워치 점유율의 경우 애플이 55.5%로 스마트워치 시장의 1위를 유지하였다. 동사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모델에 탑재되는 FPCA를 지난 4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어 애플의 시장점유율 선두 유지는 동사의 북미 시장 인지도 상승을 통한 추가 판로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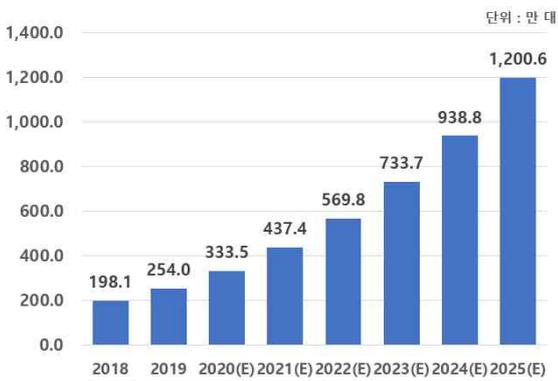
업체명	출하량		성장률	점유율	
	2020년 1분기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19년 1분기
애플(Apple)	7.6	6.2	22.6	55.5	54.4
삼성(Samsung)	1.9	1.7	11.8	13.9	14.9
가민(Garmin)	1.1	0.8	37.5	8.0	7.0
기타	3.1	2.7	14.8	22.6	23.7
총계	13.7	11.4	20.2	100.0	100.0

*출처: SA(Strategy Analytics)(2020), NICE디앤비 재가공

■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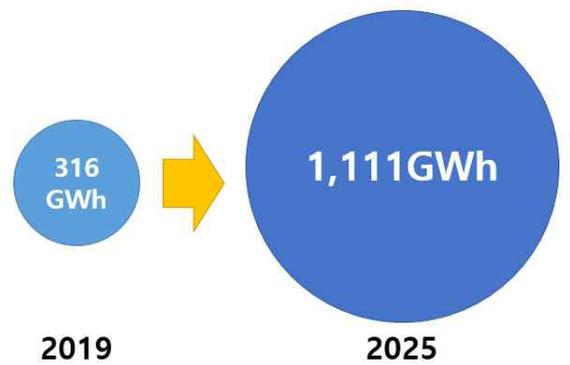
동사의 신사업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PCM 사업은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전기차 산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다. EV Sales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198.1만 대에서 2025년 1,200.6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전 세계 배터리 생산능력이 2019년 316GWh(기가와트시)에서 2025년 1,111G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사가 개발 중인 전기차 배터리 PCM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세계 전기차 시장규모 (단위: 만 대)



*출처: EV Sales(2019), NICE디앤비 재가공

[그림 8]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출처: BNEF(2019), NICE디앤비 재가공

Ⅲ. 기술분석

품질경쟁력 및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

동사는 공정 자동화를 통해 높은 품질 우위성을 확보하였으며, 보유한 표면 실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테나용 HRC, 전기차 배터리 PCM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FPCA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인 표면 실장 기술

표면 실장 기술은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이하 PCB)의 표면에 직접 실장할 수 있는 표면 실장 부품(Surface Mounted Component)을 전자 회로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메탈 마스크를 이용하여 솔더 페이스트를 도포하는 인쇄공정(Screen Printing), PCB 표면에 MLCC, 이형 부품 등을 실장하는 공정(Mounting), 열을 이용하여 실장된 부품과 PCB를 납땀하는 공정(Reflow Soldering), 후공정 투입 전 자동 광학 검사(AOI) 등을 통한 검사공정(Inspection)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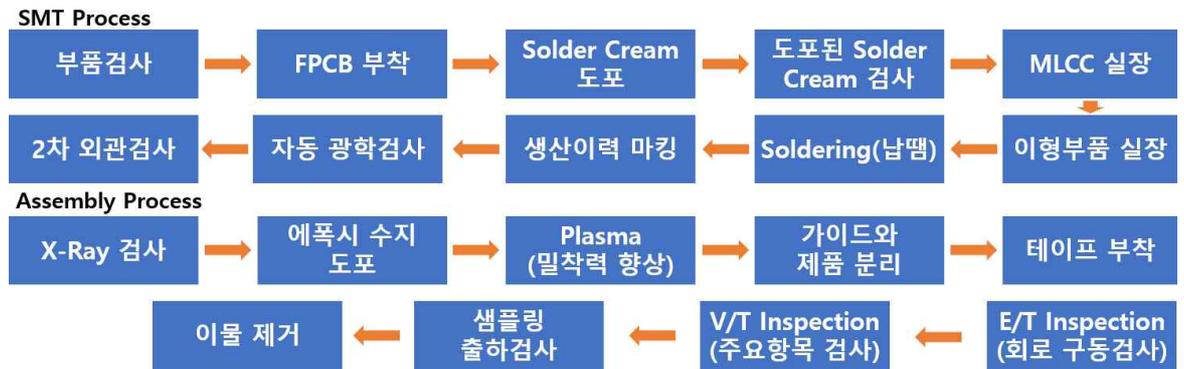
표면 실장 기술은 기존의 PCB에 구멍에 삽입하여 반대쪽 패드를 납땀하는 스루홀(Through Hole) 기술에 비해 부품이 작고 가벼우며, 더 적은 구멍으로 보드를 가공할 수 있고, 부품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어 오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스루홀 기술보다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위한 초기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있지만, 한 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제조 공정을 구축하면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신규 업체 진입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Y-OCTA 기술의 선점을 통한 품질 및 생산 우위성 확보

동사는 단순 표면 실장 공정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설계 기술, 부품 선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며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메인 디스플레이와 TSP의 일체형 부품으로 화면정보와 터치 정보를 한 번에 메인 모듈로 전달할 수 있는 일체형 OLED 패널인 Y-OCTA 기술을 선점하여 갤럭시 S 시리즈 등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Y-OCTA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위에 터치 센서 전극을 증착한 'OCTA'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플렉서블 OLED 기술 읍(YOUM)의 'Y'를 붙인 것으로, 별도의 TSP가 필요 없어 제품을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져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FPCA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사는 다수의 고속 마운터기를 보유하여 2020년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연간 46억 5,205만 개의 스마트폰 FPCA 생산능력을 갖췄다. 동 생산능력은 [(마운터기 1회당 생산량 40개 × 보유 대수 × 연간 가동시간(초))/1회 소요시간(초)]로 산정되었다.

동사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삼성전자에 FPCA를 납품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향 공급업체로 유니온, 유비셀과 경쟁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19.12) 및 경쟁기업의 감사보고서(주석 내 종속기업, 지분법 주식 관련 내용)상의 삼성전자향 FPCA 판매실적을 토대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동사가 54.3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9] 동사의 생산 공정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가공

■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PCM, HRC 안테나 등 신사업 확장 중

동사는 신사업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PCM 사업을 진행 중이다. PCM은 Protection Circuit Module의 약자로 집적회로와 모스펫(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Transistor, MOSFET)으로 구성되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보호하여 배터리의 발열, 폭발, 발화를 예방하는 회로를 말한다. 동사는 보유한 표면 실장 기술력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적용해왔던 PCM을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각 배터리 셀의 온도, 전압을 측정하여 배터리 최적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팬/승온 시스템제어, 배터리의 과충전/과방전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HRC 안테나 사업은 5G용 안테나에 활용되는 FPCA 개발사업으로 디바이스의 슬림화, 다중 채널 개발을 통한 모듈 최적화 및 소형화,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환경 최적화에 기여하여 기존 4G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LDS(Laser Direct Structuring)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2019년 SKC코오롱PI,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5G 안테나용 FPCA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동 제품은 MPI(Modified Polyimide) 소재 기반으로 만들어져 6GHz 미만의 대역부터 밀리미터파 고주파 대역에서도 안정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10]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2019년 매출 반등, 2020년 사업 다각화로 성장 동력 확보

2019년 매출처 및 제품군 다변화에 따라 매출실적이 반등하였고, 가동률 상승 등으로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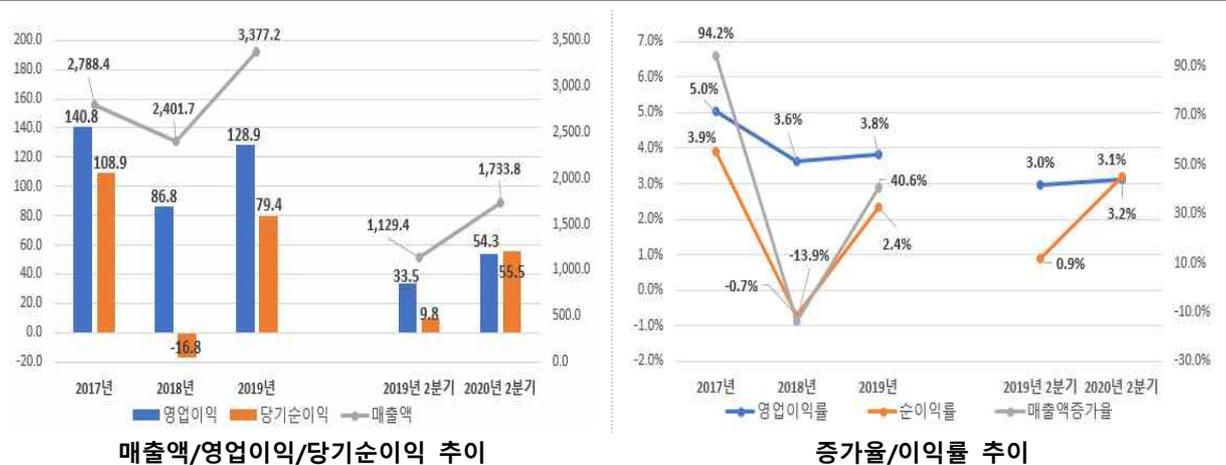
■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른 2019년 매출실적 반등

동사는 표면 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는 FPCA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노트 시리즈 등의 플래그십 모델에 사용되고 있다. 2019년 유형별 매출 구성은 크게 제품 98.3%, 상품 1.5%, 임가공 0.2%를 각각 차지하였고, 최근 3개년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2017년 77.0%, 2018년 93.3%, 2019년 96%를 각각 나타내며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8년 주요 매출처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매출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폴더블폰 출하량 증가 및 국내외 핸드셋 신규 OLED 모델 수 증가 등 전방산업 호황에 따라 2019년 매출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 2019년 수출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

동사의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애플로, 2018년 거래처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402억 원에 그쳤으나, 2019년 스마트폰 고사양화(폴더블, OLED)에 따른 수요 증가, 2차전지 PCM, 5G 안테나용 부품 관련 신규사업의 확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0.6% 증가한 3,37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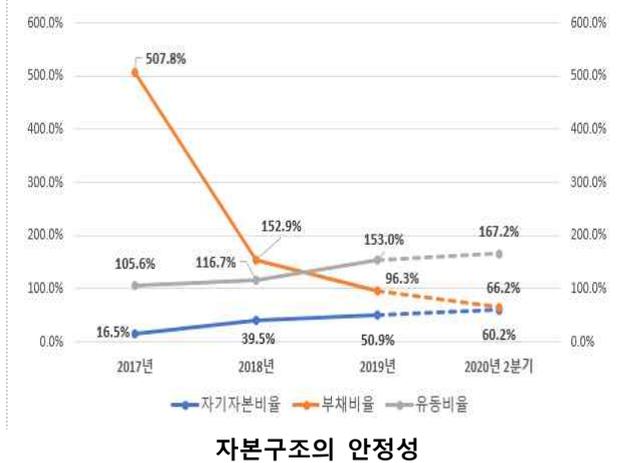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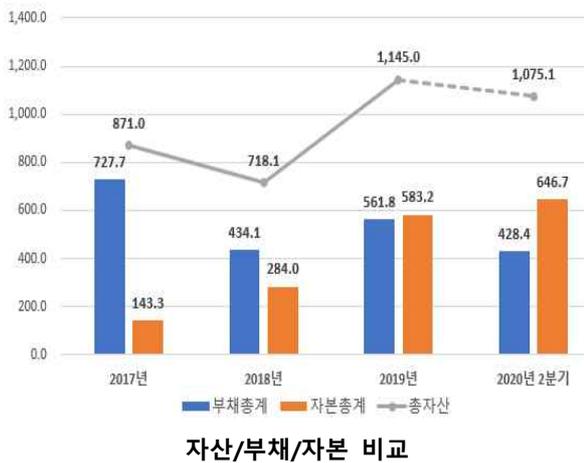
동사는 90%를 상회하는 높은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3개년 간 4% 내외의 영업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다만, 2019년 매출실적 증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3.6%에서 상승한 3.8%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고, 영업이익 129억 원(+48.5% YoY)을 기록하며 매출액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8년 매출 감소와 과생상품평가손실에 따른 영업외비용 증가로 인하여 순손실 17억 원가량이 발생하였다. 이후 2019년 실적 개선 및 영업외비용 부담의 축소로 인해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매출액 순이익률 2.4%를 기록하였다. 다만, 순이익은 79억 원으로 2017년에 못 미치는 수준인바, 수익성 개선 여부가 과제로 남아있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 2020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실적 및 이익률 개선

5G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더불어 스마트워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020년 2분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53.5% 증가한 1,734억 원을 기록하며 연 매출 증가 가능성을 나타냈다.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부담의 완화에 힘입어 매출액 영업이익률 3.1%, 매출액 순이익률 3.2%를 각각 기록하며 수익성이 전년동기 대비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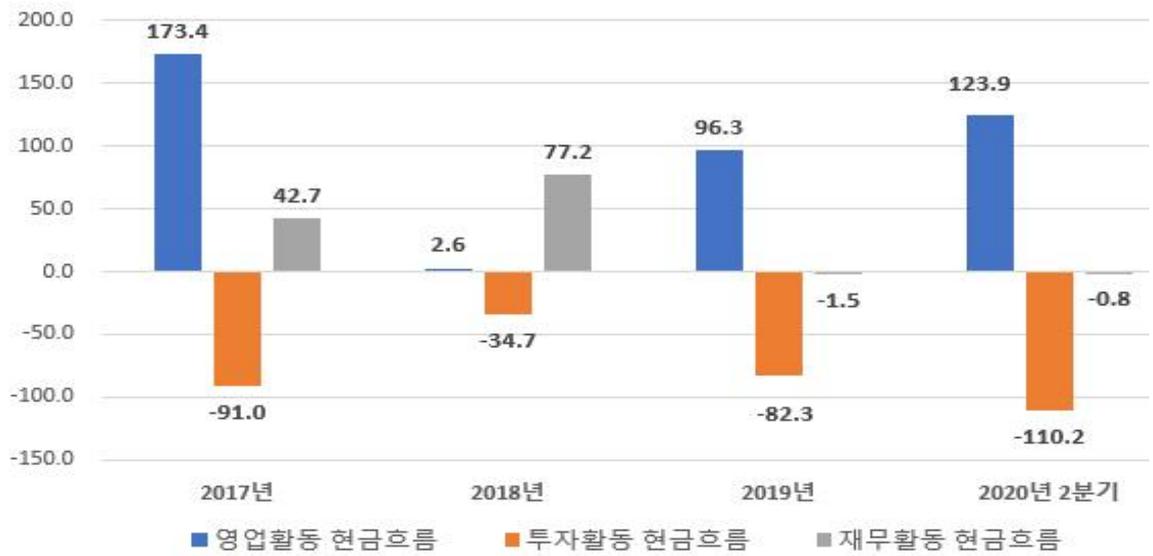
■ 2019년 순이익 흑자 전환에 따른 현금 유입 증가로 현금흐름 개선

동사는 2019년 순이익의 흑자 전환과 더불어 감가상각비 등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96억 원을 기록하며 2018년 3억 원 대비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유형자산의 취득 등의 투자 활동 현금흐름과 리스 부채의 상환 등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필요한 자금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충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기초현금 226억 원에서 기말현금 235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의 규모도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퀄컴의 부품 사용승인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 및 매출 구성 다양화 기대

퀄컴의 5G 안테나 부품 사용승인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등이 동사의 사업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하여 매출 구성 다양화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 퀄컴의 5G 안테나 부품 사용승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2020년 7월 동사는 (주)비에이치와 함께 퀄컴으로부터 5G MPI 케이블 관련 부품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당 부품은 퀄컴에서 생산하는 RFIC 모듈과 모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퀄컴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는 통신칩뿐만 아니라 기존의 밀리미터파 칩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동사는 이번 사용승인을 통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동사의 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14] 동사의 케이블 부품 모식도



*출처: ET NEWS(2020.07.14.)

■ 2020년 2분기 실적 전년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개선이 과제

동사는 삼성전자향 FPCA M/S 1위 업체로 폴더블폰 출하량 증가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19년 매출실적이 증가하였고, 2020년 2분기까지 실적 개선 추이를 나타내었다. 동사는 전기차용 PCM, 5G용 안테나 FPCA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진행 중인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부진, COVID-19 등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2019년 매출실적 확대와 더불어 공장 가동률 개선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고, 과생상품평가손실 미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외수지가 흑자 전환하며 순이익 또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90%를 상회하는 높은 원가율은 동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여부는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다.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에 따른 5G 사업 성장 기대

정부는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산업의 확장을 위한 5G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의 빠른 전송 기반이 마련되어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만큼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사업은 이동통신사, 5G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생산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금융투자	BUY	23,800원	2019.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핸드셋 업체향 Y-OCTA FPCA 납품의 불발로 주가 14% 하락. ■ 2020년 모델에 대한 공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경쟁사들의 CAPA 초과로 디케이티가 추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 상존. ■ 폴더블용Y-OCTA FPCA, 중화권 업체향 FPCA, 안테나용 부품, 2차전지용 등의 추가 신규 매출 발생에 따른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키움증권	Not Rated	-	2019.0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요 고객사 및 중화권 Top Tier 고객사의 프리미엄 모델 출시와 PCM 물량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 ■ 향후 국내외 프리미엄 모델 출하량 확대, 가동률 상승, PCM, 5G 안테나 모듈 등 고부가 성장 아이템이 실적 개선과 기업 가치 개선을 이끌 전망. 		